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환영”

조계종 대변인 ‘아산나눔재단’ 설립계기 논평

범 현대 그룹사의 ‘아산나눔재단’ 설립 추진과 관련 조계종 총무원이 기업의 연이은 사회공헌 활동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조계종 대변인 정만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지난 16일 발표한 논평에서 “범 현대 그룹사들이 출연하는 아산나눔재단이 설립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우리 종단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더 많은 기업과 개인, 종교단체들이 국민과 함께하며 우리 종단 역시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 정만스님은 이어 “기업의 사회공헌과 사회적 기여는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라고 전제한 뒤 “열심히 일하고 맘 흘려 사회에 공헌해 창출된 이익을 함께 나누가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더욱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며 나눔문화의 확산을 기원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7일 수해를 입은 서울 우면산 전원마을 비닐하우스촌의 한 가정을 방문해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군부압력으로 40여명 징계 ‘오점’

공평 인사 등 정상화 위해 ‘부심’

‘정화중흥회의’
 <1면에 이어>

정화중흥회의는 1981년 2월까지 4개월간 종단을 임시 운영했다. 군부의 압력으로 40여 명의 스님들을 징계하는 오점을 남겼으나, 공평한 주지 인사 등 종단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게 스님들의 회고다. 고우스님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권의 인사 개입을 차단하고 군인들이 부당하게 압수한 스님들의 물품을 전부 되돌려주며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심했다”고 말했다. 지환스님은 “법난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었지만 정화중흥회의가 이후 종단 안정의 기반을 닦지 못한 것은 분명한 과오”라고 평가했다. 군부의 왜곡과 날조를 뒤집을 수 있는 정보와 역량이 부재했던 게 궁극적인 한계였다. 탄성스님이 전적으로 신임하던 활성스님은 사서실장에 임명됐다. 주변으로부터 ‘삭도 물도 마르지 않은 승려가 종권을 전횡한다’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 법난 정국이 끝난 뒤엔 은둔하면서 근본 불교 경전을 번역하는 불사에 매진하고 있다. 면담이 이뤄진 고요한소리 역경원은 스님이 주석하는 곳이다. 법난이 정벌에 대한 고민을 이끈 반면교사가 된 셈이다. 활성스님은 “처절한 개혁이나 원만한 통합이나 사이의 기로에서 결

국 나는 통합을 선택했다”며 “법난은 무식한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였고, 끔찍한 악몽을 빨리 잊어버리게 하는 일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솔회했다. 무엇보다 스님들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단언컨대 “10·27법난은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신군부가, 정통성을 확보할 요량으로 ‘부정부패 척결’이란 미명하에 종단에 총칼을 들이댄 테러”라는 것이다. 조계종과 대한불교진흥원의 급작스러운 관계 악화 등 내부 공모의 정황이 있지만, ‘부역자’ 색출보다는 국가에 의한 폭력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었다. “법난의 실질적 목적은 정권 유지와 위한 종교계 비자금 탈취였고 최종 목표는 불교가 아닌 개신교였을 것”이란 활성스님의 추리도 눈길을 끌었다.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는 법난 당시 관련됐던 스님과 재가인사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계속하며 다양한 추가증언을 수집하고 있다. 위원장 영답스님은 “국방부의 방첩이 스님들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이라며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전체가 입은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규명이 이뤄진 뒤에야 진정한 명예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살아갈 수 있는 힘 전해주셨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수해지역 비닐하우스촌 방문

우면산 피해주민 대표 “너무 고맙다” 감사 인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서울 우면산 전원마을 비닐하우스촌을 찾아 피해주민을 위로하며 희망을 건넸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아름다운동행 이사장)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방배2동에 위치한 전원마을 비닐하우스촌을 찾아 건물복구 및 수리비 2000만원과 생수 ‘산은 산이요 물은 감(甘)이로다’ 1톤을 전달하며 피해주민들을 위로했다. 시유지와 사유지에 조성된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으로 9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전원마을 비닐하우스촌은 지난 7월27일 수도권권의 집중호

우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비닐하우스 10채가 파손 또는 반파되는 등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피해주민 가운데 10가구는 아직도 비닐하우스 건물을 복구하지 못해 인근 경로당에 마련된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무허가주택이라는 법적규정 때문에 정부의 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다. 매달 복지시설이나 소외된 이웃을 찾아 희망을 건네고 있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비닐하우스집이 산사태로 인해 부서진 피해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전원마을주민자치센터를 찾아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며 희망을 잃지 말고 곳곳이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권기현 비닐하우스주민연합 전원마을 회장은 “비닐하우스 내에도 허리까지 물이 찰 만큼 엄청난 양의 폭우가 내리고 산사태가 발생해 생계를 꾸려가기가 더욱 힘들게 됐다”면서 “총무원장 스님께서 직접 이곳을 찾아주셔서 저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전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매일같이 내리는 비로 인해 누

군가에게 책임을 묻기도 힘든 실정”이라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기 바란다”며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어 동행한 고승덕 국회의원과 진익철 서초구청장에게 “이번 문제는 법의 잣대로 보기 보다는 인정의 문제인 만큼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정성껏 보살펴주기 바란다”고 피해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7월27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천태종 소속 서울 관문사와 불교TV를 지난 18일 위로방문했다. 특히 총무원장 스님은 집중호우시 출근하다 중상을 입어 성모병원에 입원한 양희상 불교TV 기술국장을 찾아 치료비를 전달하며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불교계와 협조해 사업 추진”

유영숙 환경부장관, 총무원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유영숙 환경부 장관과 환담했

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사진)은 “우리나라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으며 그 가운데 상당부분은 사찰이 보존하고 있다”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잘 지키고 보존해 나가야 하는 만큼 불교계와 협조해가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불교는 못생명을 사람과 같이 대할 만큼

생명존중사상을 갖고 있다”면서 “조계종과 환경부가 협력해 소중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유산을 지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는 총무원 기획실장 정만스님, 사회부장 혜경스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직스님(불교신문 주간),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배석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 사임

직무대행 체제 운영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이 사임했다. 천태종은 지난 18일 총무원장 정산스님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종정 도용스님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며, 16일자로 수리됐다고 밝혔다. 정산스님은 지난 2006년 천태종 14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했으며, 2010년 연임돼 15대 총무원장직을 수행해왔다. 정산스님의 사임에 따라 총무부장 무원스님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후임 총무원장은 종헌에 따라 종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종정 스님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비구니회 추천 상화스님

직능대표 종회의원 선출

1명이 공석인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에 경주 금련사 주지 상화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직능대표 선출위원회(임시의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상화스님을 제15대 중앙종회의원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유신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상화스님은 1967년 범어사에서 재가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75년 범어사에서 고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상화스님은 부산 천태암 주지와 포항 자원사 주지, 부산 보광사 주지, 부산비구니회 초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주 금련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박인탁 기자

41기 사미(니)수계교육

9월2일까지 16일간

임문교육을 마친 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41기 사미·사미니수계교육이 시작됐다. 조계종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9월2일까지 16일간 제8교구본사 직지사에서 사미사미니수계교육을 진행한다. 41기 수계교육에 임교한 행자는 모두 149명으로 남행자가 95명, 여행자가 54명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행자교육원을 수료한 외국인 행자 6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최근 개정발간한 행자교육교재를 통해 16일간의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며, 오는 9월1일 예정된 5급 승가고시 합격자에 한해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하게 된다. 사미·사미니계 수계식은 9월2일 오전8시 직지사 만덕전에서 봉행된다.

 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제6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행정강좌 개설안내

본종에서는 본·말사 재가종무원의 총무행정 실무 능력 향상과 우수한 총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6기 총무행정강좌를 개설하오니 동참바랍니다.

- 다 음 -

■강좌내용 : 총무행정이해, 정체성 확립, 사찰교무행정, 회계관리 실무, 사찰문화재 및 불사관리, 자원봉사 활동관리 등 전반적인 총무행정 실무교육

■수강대상 : 본·말사 재가종무원(입사 1년~5년차 총무원에게 적합한 과정)

■일 시 : 불기2555(2011)년 10월 20일(목) ~ 10월 21일(금) 1박 2일

■수 강 료 : 10만원 (1박 2일 숙식 및 교재비 포함)
 계좌 : 국민은행 023501-04-144692, 예금주 : 제)대한불교조계종
 수강료는 반드시 본인이름 기재 및 계좌 입금

■장 소 :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충남 공주 소재)

■접수마감일 : 불기2555(2011)년 9월 16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서는 우편, 팩스(02-720-3302) 또는 이메일(song@buddhism.or.kr)로 제출(신청서 - 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접수 및 문의처 : 우(110-170) 서울 종로구 전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 02)2011-1724 / 팩스 02)720-330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buddhism.or.kr) 및 전화문의하시기 바랍니다.